2025.08.05.(화) 증권사리포트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롯데칠성
음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반전 기대
[출처] iM증권 이경신 애널리스트

2Q25 Review: 내수 부진, 해외로 커버
롯데칠성의 2Q25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873억원 (-1.1% YoY), 623억원 (+3.5% YoY)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에서 기인한 내수시장 축소가 음료 및 주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일부 원가개선에도 불구,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었다. 다만 미얀마 등 음료 해외부문의 가동률 확대에 따른 이익 기여가 증가하면서 전사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시현했다.
2Q25 개별 음료부문은 대외변수 등 외부요인에서 비롯한 물량 감소 흐름이 가동률 하락 및 관련 이익 조정으로 이어졌다. 제로 카테고리 등 시장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나, 내수 음료 매출액 성장률은 -9.7% YoY로 전분기대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고정비 부담이 아쉽다. 다만 2H25의 경우 일부 소비심리 개선 및 날씨 영향, 베이스효과 등에 따라 주요 카테고리 중심 (+)전환이 가능한 상황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탄산 등 주요 제품의 가동률 확대는 전사 수익성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장률 시현시 원가부담 하락 시기에 성수기가 맞물린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가 가능하다.
파키스탄, 미얀마, 필리핀 등 해외 음료 법인의 경우 전분기대비 가동률이 상승하는 시기로, 특히 미얀마의 원액공급 차질 영향이 해소되면서 생산라인 확대분에서의 물량 공급 증가가 국내 경기침체 요인과 관련한 이익 조정분을 상쇄했다. 원액 수입관련 리스크 요인이 단기 해소 상태임에 따라 하반기 실적개선 흐름의 유지 가능성이 높다.
개별 주류부문의 경우 대내외적 영향의 반영에 따라 -6.5% YoY의 외형 조정을 시현했다. 재료비 등 비용에 대한 (-)영향은 음료사업대비 제한적이나, 가동률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둔다. 다만 전년동기 비용집행 관련 베이스효과에 따른 이익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원으로 조정
2H25 국내외 음료부문의 개선 가능성이 고려되는 상황임을 감안, 저점을 통과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3분기 성수기 음료 가동률 상승시기와 맞물린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기대에 미얀마 등 해외 음료법인 영업실적 개선세가 더해진 수익 개선이 가시화된다면 여타 동종업체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 우려가 해소됨에 따른 주가 반영을 기대해볼 만하다. 전사 영업이익과 관련한 눈높이 조정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이익 개선 시현 및 지속 가능성 확대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확보 또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FY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십억원)	4,025	4,057	4,243	4,415
영업이익(십억원)	185	207	226	252
순이익(십억원)	59	118	140	159
EPS(원)	5,878	11,725	13,937	15,837
BPS(원)	149,082	159,374	171,878	186,283
PER(배)	19.1	11.5	9.7	8.5
PBR(배)	0.8	0.8	0.8	0.7
ROE(%)	4.0	7.6	8.4	8.8
배당수익률(%)	3.0	2.5	2.5	2.5
EV/EBITDA(배)	6.0	4.5	4.3	3.5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비에이치

실적 반등보다 더 중요한 경쟁구도 변화

[출처] SK증권 박형우, 권민규 애널리스트

2 분기 리뷰 & 3 분기 전망: 실적 서프라이즈

우려를 뒤엎고 호실적을 달성했다.

2 분기 영업이익은 160 억원(-49%, 이하 YoY)을 기록했다. 북미고객사의 신모델 부품과 국내 폴더블 업그레이드 및 차량용무선충전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반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IT 태블릿과 전장용 EV 케이블에서는 적자가 지속됐다.

3 분기 영업이익은 492 억원(-6%)으로 전망된다. ① 북미고객사 내 점유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해 가정했다. ② 북미제조사는 2 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판매 프로모션을 단행한다. 국내제조사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③ 무선충전 매출은 전장수요둔화와 재고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2026 년의 세 가지 변화 포인트

실적의 저점을 확인했다. 하반기와 2026 년을 주목한다.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며, 판가와 수익성 압박에 더해 수요 둔화 및 재고 조정 가능성도 변수로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2026 년은 구조적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① 북미 제조사의 폴더블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 대비 약 2.5 배의 높은 공급단가가 적용된다. ② 태블릿 및 노트북의 OLED 전환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한 모델에만 OLED 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세 모델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5 년여간 성장이 지속될 분야다. ③ 사업 축소 및 철수에 나서는 경쟁사들로 인해, 과점 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목표주가 20,500 원 유지, FPCB 의 수요와 공급

FPCB 산업 내 공급 제약으로 동사의 시장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지난 8년간 경쟁해왔던 네 개 업체는 모두 FPCB 사업을 축소, 철수했거나 또는 대주주가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이는 전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우호적일 것으로 보는 주요 배경이다. 2026 년 '디스플레이 케이블 (FPCB)' 시장에 주목하며, 목표주가와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2	2023	2024	2025E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1,681	1,592	1,754	1,688	2,079	2,412
영업이익	십억원	131	85	87	60	134	172
순이익(지배주주)	십억원	144	91	67	61	144	180
EPS	원	4,176	2,631	1,945	1,783	4,183	5,210
PER	배	5.4	8.0	8.9	8.3	3.5	2.9
PBR	배	1.3	1.0	0.8	0.6	0.5	0.4
EV/EBITDA	배	4.8	5.8	4.4	3.2	1.5	0.6
ROE	%	29.7	15.1	9.9	8.3	17.3	18.2

세방전지
2분기 이익률 하락은 일시적 요인들이 많았다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2Q25 Review: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 7.1% 기록

세방전지가 별도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1%/-25% (YoY) 변동한 4,254억원/300억원(영업이익률 7.1%, -3.3%p (YoY))을 기록했다. 주력인 차량용 납축전지에서 물량 증가와 판가 상승, 그리고 환율 효과로 매출액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3.3%p (Yoy), 3.8% (QoQ) 하락한 7.1%를 기록했는데,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원인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원재료 매입 및 매출화 시점의 환율 차이이다. 주요 원재료인 납 가격이 LME 가격에 연동하고, 제품의 수출 비중이 65~68%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통상 원재료 매입 후 매출화까지 2~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 시점에서 제품 매출 시점까지 환율이 하락하면 부정적이다. 원/달러 환율이 3월말 1,474원에서 6월말 1,354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이 원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원재료 중 희귀 원재료인 안티모니 가격이 급등했다. 주 생산지인 중국의 수출 통제로 안티모니 가격이 급등하면서 2개월 정도 후행하는 원재료 투입원가도 상승한 것이다. 셋째, 미국 관세 영향이다. 전체 매출액 중 약 8% 비중이 미국향인데, 25% 관세 비용이 5월부터 반영되었다. 넷째, 인건비 증가이다. 통상임금 판결 후 인건비 재조정이 있었고, 특히 2분기에는 소급분에 대한 지급도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위 4가지 요인들 중 환율 하락과 원재료 급등 효과는 관련 가격들이 안정화되면서 낮아질 수 있고, 미국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하향되었으며, 인건비 요인은 인상분은 유지되겠지만 일시 소급분은 제거될 것으로 판단한다. 관세 및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판가 인상도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세방리튬배터리/상신금속 등을 포함한 연결기준 실적에 대한 분기보고서가 나온 후 알 수 있다.

광주공장의 증설 추진. 주주환원 정책도 검토 중

세방전지는 광주공장 내 납축전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공장은 2024년 기준 차량용 MF 축전지 위주로 1,850만개의 생산능력을 보유 중인데(vs. 창원공장은 AGM/산업용 위주로 580만개), 내년 하반기

까지 8% 이상 증설하여 2,000만개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이 MF 축전지를 축소하고 AGM으로 라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MF 축전지 부문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설을 통해 점유율 상승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연결 기준 약 8.6%인 배당성향을 장기적으로는 업종 평균인 16% 수준까지 높이는 등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P/E 6배 대의 Valuation 기록 중

2분기의 수익성 하락에 일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관련 요인들은 하반기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AGM과 EV전지 위주의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증설을 통해 추가 성장의 기회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P/E 6배 대의 Valuation은 저평가라는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1,352	1,473	1,685	2,060
영업이익	100	81	130	180
세전이익	119	70	141	220
순이익	84	43	118	172
EPS	6,022	3,059	8,348	12,101
증감율	27.2	(49.2)	172.9	45.0
PER	12.6	13.8	7.0	5.9
PBR	0.9	0.5	0.6	0.7
EV/EBITDA	6.0	3.8	3.6	5.0
ROE	7.1	3.5	9.0	11.5
BPS	85,729	88,677	95,799	107,493
DPS	600	600	700	1,100

뉴파워프라즈마
별도 실적 고공행진, 연결 성장 모멘텀 강화 중

[출처] 하나증권 한유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16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뉴파워프라즈마에 대해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16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Fwd 12M EPS 679원에 Target PER 13.5배(글로벌 Peer 2사 Avg. PER에 35% 할인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했다. 동사의 2025년 (K-IFRS 연결) 예상 매출액은 5,718억원(YoY+10.0%), 영업이익 410억원(YoY+25.8%, OPM 7.2%), (K-IFRS 별도) 매출액은 1,967억원(YoY+33.8%), 영업이익 376억원(YoY+35.3%, OPM 19.1%)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① 반도체 RPS의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사 확대로 별도 본업의 가파른 성장, ② 자회사 엔피엠의 구조조정 마무리 국면, ③ 스페이스프로 및 도우인시스 성장 및 지분가치 등을 고려하면 현 주가는 12M Fwd EPS 기준 7.9배에 불과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플라즈마 핵심 부품 기업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주요 제품은 1) 박막, 증착, 식각 공정 후 챔버 내에 부산물을 제거하는 모듈인 RPS, 2) 플라즈마 발생에 필요한 고주파 전력 장치 RFS 이다. 동사는 M&A는 통해 우주방산 복합소재 기업인 스페이스프로와 UTG 제조업체 도우인시스 등을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연결 기준 사업부문은 1) 클리닝, 2) RF시스템, 3) 방산, 4) UTG, 5)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선단 공정 비중 확대로 플라즈마 모듈 수요 증가

올해 동사의 별도 사업부문(클리닝, RF시스템, 유지보수)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①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와 선단 공정 비중 확대로 인해 플라즈마 수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특히 RPS 시장은 MKS, Advanced Energy, 뉴파워프라즈마 등 극 소수의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인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③ RPS와 RFS의 제품 사용연수는 2~3년에 불과하며, 최근 전방 수요처의 교체시기 도래로 인해 추가 발주가 예상된다. ④ 북미 고객사 신규 확보와 더불어 중국향 매출도 동시에 확대

되고 있어 올해 동사의 별도 부문 예상 매출액은 1,967억원(YoY+33.8%), 영업이익 376억원(YoY+35.3%, OPM 19.1%), 해외 매출 비중은 70%에 이를 전망이다.

연결 자회사 실적개선 및 지분가치 매력 확대

스페이스프로는 방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복합소재 수요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북미 지역의 글로벌 무인기 전문 업체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및 마진 개선이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사의 스페이스프로 장부가는 약 556억원이며, 방산 부문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2,470억원(YoY+10.9%) 달성이 예상된다. 도우인시스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내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로서 UTG 분야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방 폴더블 시장 성장 및 매출처 다각화가 진행 중이며, 동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장부가 약 681억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50.7	519.8	571.8	629.0
영업이익	16.1	32.5	40.9	48.8
세전이익	22.2	34.9	34.3	43.0
순이익	19.3	19.1	26.9	31.1
EPS	441	437	615	711
증감율	(24.62)	(0.91)	40.73	15.61
PER	11.90	10.11	8.70	7.52
PBR	0.89	0.68	0.75	0.68
EV/EBITDA	10.28	6.91	5.84	4.61
ROE	8.16	7.43	9.43	9.92
BPS	5,880	6,526	7,149	7,814
DPS	50	50	50	50

선익시스템

퀀텀 점프를 보아라

[출처] 유진투자증권 허준서 애널리스트

2Q25 매출액 1,596억원, 영업이익 287억원으로 전년 비 274.8%, 286.3% 성장 전망, 작년 연간실적을 넘어설 퀀텀 점프의 시작

높은 성장의 원인은 BOE향 8.6G OLED 증착기 수주의 Phase1, 첫번째 라인 선적 시작, 스케줄 상 3분기까지 걸쳐 인식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국내 패널사 및 해외 소재업체향 연구개발용 증착기 매출로 연간 실적 흐름 양호할 전망

그럼에도 장기간 부진한 주가는 수주 연속성에 대한 의문이 원인, 당초 상반기쯤으로 예상했던 Visionox의 8.6G 증착장비 수주는 VIP방식 선 투자 및 FMM 방식 이연으로 연내 멀티플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지만 BOE의 Phase2(월 16K 규모) 투자가 뒤이어 예정되어 있고, CSOT의 8.6G OLED 라인 투자소식(월 45K 규모)을 고려했을 때 중화권 패널사들의 OELD 장비 투자 사이클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BOE의 후속투자인 Phase2 물량은 산업특성상 동사의 수주가능성이 높고, 이는 동사의 기술력을 반증, 리드타임을 고려했을 때 BOE향 납품만으로도 2027년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펀더멘탈 흐름 보여줄 것,

수주 연속성에 대한 우려 반영해 Target P/E 11배로 조정, 목표주가를 60,000원으로 하향하지만 투자의견은 유지

도표 1. **선익시스템 분기 실적 전망(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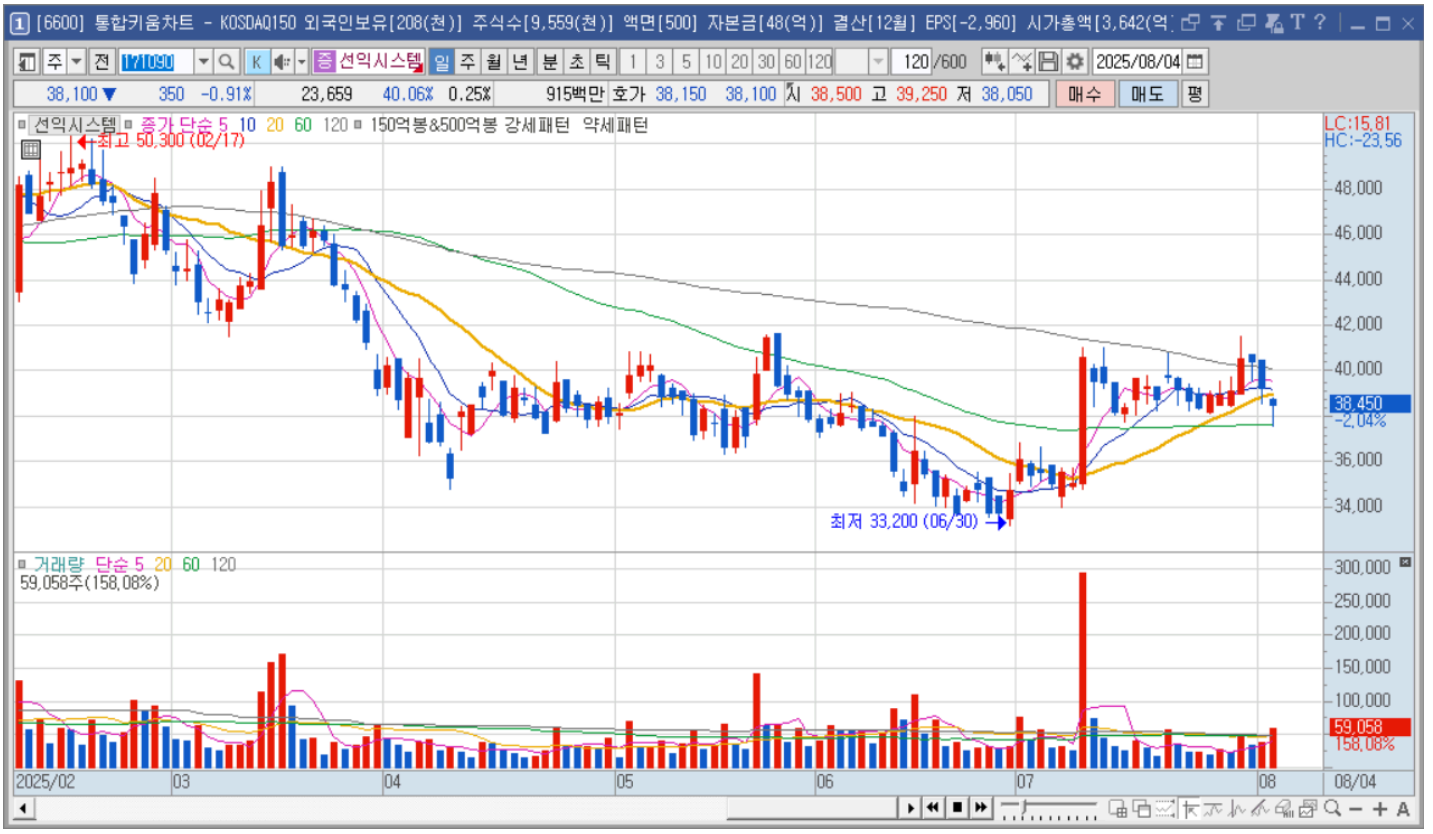
(십억원)	1Q24A	2Q24A	3Q24A	4Q24A	1Q25A	2Q25F	3Q25F	4Q25F
매출액	17.3	42.6	12.9	40.1	15.9	159.6	125.1	40.7
YoY(%)	14.1	743.4	(37.0)	84.6	(8.3)	274.8	873.2	1.3
증착장비(해외)	1.6	40.1	6.6	31.4	12.8	152.2	105.9	34.6
증착장비(국내)	14.5	1.0	5.1	6.4	2.1	5.6	17.2	4.9
상품/서비스	1.2	1.5	1.2	2.3	1.0	1.8	2.0	1.2
매출원가	14.7	30.1	10.8	31.5	12.8	125.3	96.5	32.9
매출총이익	2.7	12.5	2.0	8.6	3.1	34.3	28.6	7.8
판관비	3.8	5.1	3.6	5.4	4.9	5.6	5.8	6.3
영업이익	(1.2)	7.4	(1.6)	3.2	(1.8)	28.7	22.8	1.4
YoY(%)	(54.8)	(247.9)	적전	(6.9)	55.5	286.3	흑전	흑전
영업이익률	(6.7)	17.5	(12.2)	7.9	(11.3)	18.0	18.2	3.5
영업외손익	(7.6)	(8.4)	10.1	(32.9)	(0.8)	19.0	(0.9)	(0.9)
세전이익	(8.8)	(1.0)	8.6	(29.7)	(2.6)	47.7	21.9	0.5
법인세비용	(0.0)	(1.1)	0.7	(2.4)	0.8	9.7	4.4	0.1
당기순이익	(8.8)	0.1	7.9	(27.3)	(3.4)	38.0	17.5	0.5

자료: 선익시스템, 유진투자증권

도표 2. **선익시스템 연간 실적 전망(연결)**

(십억원)	2020A	2021A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65.6	46.2	74.1	62.4	112.9	341.3	444.7
YoY(%)	0.0	(29.6)	60.2	(15.7)	80.9	202.3	30.3
증착장비(해외)	-	-	29.6	32.9	79.7	305.6	421.4
증착장비(국내)	-	-	39.4	23.0	27.1	29.8	18.3
상품/서비스	-	-	5.1	6.5	6.2	5.9	5.0
매출원가	51.4	37.9	56.2	47.5	87.1	267.5	335.4
매출총이익	14.2	8.3	17.8	14.9	25.8	73.8	109.3
판관비	10.5	15.4	13.4	18.9	17.9	22.6	23.1
영업이익	3.7	(7.1)	4.4	(4.1)	7.9	51.2	86.2
YoY(%)	0.0	5.2	흑전	적전	흑전	547.5	68.3
영업이익률	5.6	(15.4)	6.0	(6.5)	7.0	15.0	19.4
영업외손익	(0.9)	(3.1)	(5.9)	(5.5)	(38.8)	16.4	(4.8)
세전이익	2.8	(10.2)	(1.5)	(9.5)	(30.9)	67.6	81.4
법인세비용	0.5	0.0	1.7	(0.3)	(2.8)	15.0	20.4
당기순이익	2.3	(10.2)	(3.2)	(9.2)	(28.1)	52.5	61.0

자료: 선익시스템, 유진투자증권



KCC

실리콘 회복으로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출처] 하나증권 윤재성 애널리스트

2Q25 영업이익 컨센 18% 상회

2Q25 영업이익은 1,404억원(QoQ +36%, YoY -0.1%)으로 컨센(1,192억원)을 18% 상회했다. 실리콘의 드라마틱한 개선이 주 원인이다.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영업이익은 466억원(QoQ +126%, YoY

+153%)으로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한다. OPM은 5.8%로 QoQ +2.1%p 개선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과거 높은 가격으로 계약된 원료가격의 부정적 효과가 제거되고 메탈실리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영향이다. 도료 영업이익은 612억원(QoQ +9%, YoY -7%)으로 여전한 호실적을 추정한다. 건축용 도료 부진을 조선용 도료가 상쇄한 덕이다. 건자재는 YoY 부진하나, QoQ로는 개선되는 흐름이었다.

3Q25 영업이익 QoQ 추가 개선 전망

3Q25 영업이익은 1,485억원(QoQ +6%, YoY +19%)으로 추가 개선을 전망한다. 건재/도료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감익을 추정하나, 실리콘의 추가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리콘 영업이익은 553억원(QoQ +19%, YoY +114%)을 예상한다. 원가 개선 효과 지속을 가정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근의 판가 급등분은 추정치에 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업황 상황을 감안할 때 추정치는 향후 충분히 상향될 것으로 판단한다.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2021~22년보다 긍정적인 환경

BUY를 유지하고, TP는 44만원에서 52만원으로 상향한다. 2025~26년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고, 2021~22년 기록한 PBR 0.7배를 적용했다. 당시보다 영업환경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적인 Target Multiple 설정이다. 2021~22년의 Valuation을 적용한 근거는 1) 당시보다 건재/도료의 이익 체력이 높아져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한데다 2) 밸류업과 차입금 감축에 대한 회사의 의지가 강해졌고 3) 중국 신증설 부재, 구조조정으로 실리콘의 향후 2~3년 증익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5년 영업이익은 5,227억원(YoY +11%)으로 사상 최대치를 예상한다. 실리콘 영업이익이 YoY +1,079억원 개선되며 건자재의 감익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실리콘은 2026년까지 Up-Cycle에 진입한다. 1) 2025~26년 제한된 신증설 2) 7/5일 중국 MIIT의 유기실리콘 산업 정리정돈 가이드라인과 7/18일 유기실리콘 산업 규범 조건 발표 3) 7/20일 산둥 둥웨(Shandong Dongyue)의 폭발 사고 4) Dow의 영국 베리 실록산(DMC) 공장 2026년 중반 폐쇄 발표 등 영향이다. 2020~25년 중국 DMC 수요는 CAGR +15% 증가했으나, 이를 넘어서는 증설이 2022~24년 집중되어 2024년 가동률은 65.5%로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2025~26년은 업황 부진으로 증설이 제한되며 2025년 74% → 2026년 87%으로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PBR 1배 이상에 대한 회사의 의지,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감에 더해 실리콘의 강한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섹터 Top Pick으로 제시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6,288.4	6,658.8	6,840.3	7,246.6
영업이익	312.5	471.1	522.7	599.9
세전이익	244.4	469.9	1,552.1	464.4
순이익	212.7	310.6	1,102.0	352.9
EPS	23,931	34,948	124,011	39,716
증감율	527.95	46.04	254.84	(67.97)
PER	9.55	6.74	2.83	8.83
PBR	0.37	0.39	0.49	0.47
EV/EBITDA	8.44	7.26	6.92	6.18
ROE	4.13	6.08	19.84	5.69
BPS	616,916	601,382	717,117	748,557
DPS	8,000	10,000	10,000	10,000

[6600] 통합키움차트 - KOSPI200 외국인보유[861(천)] 주식수[8,886(천)] 액면[5,000] 자본금[481(억)] 결산[12월] EPS[34,948] PER[11.32]
KCC
395,500 ▲ 19,500 +5.19% 33,216 46.86% 0.37% 13,121백만 호가 395,500 395,000 시 384,500 고 399,500 저 384,500
KCC 증가 단순 5 10 20 60 120 150억봉&500억봉 강세패턴 약세패턴
최고 407,000 (07/17)
배당락(0.00%)
최저 231,000 (04/09)
거래량 단순 5 20 60 120
70,878주(133.09%)
2025/02
03
04
05
06
07
08
08/04

[6600] 통합키움차트 - KOSPI200 외국인보유[861(천)] 주식수[8,886(천)] 액면[5,000] 자본금[481(억)] 결산[12월] EPS[34,948] PER[11.32]
KCC
395,000 ▲ 19,000 +5.05% 33,224 46.87% 0.37% 13,124백만 호가 395,500 395,000 시 384,500 고 399,500 저 384,500
KCC 증가 단순 5 10 20 60 120 150억봉&500억봉 강세패턴 약세패턴
최고 407,000 (07/17)
배당락(0.00%)
최저 186,700 (07/07)
거래량 단순 5 20 60 120
70,878주(133.09%)
2023
2024
2025
08/04